

김민환의 세상읽기



백세시대가 오고 있다

대통령이 개각을 할 것이라는 설이 돌면 신문마다 예측기사를 대서특필하던 시절의 어느 정치부 기자 이야기다. 그는 개각 내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이름을 날렸다. 개각이 임박하자 그는 장관자리 몇 개가 바뀔지, 누가 될지 취재를 시작했다. 개각이 발표되기 전날 저녁에 기사는 나름대로 취재한 바를 취합해 기사를 썼다.

다음날 개각이 발표되기 전에 조간 1면 머리기사로 나가는 것이어서 기사는 불안전했다. 맞으면 대특종을 하는 셈이 되고 틀리면 웃음거리가 되기 십상이었다. 밤늦게 집으로 가다 말고 그는 급히 청와대 비서실에 사정해 대통령을 독대했다. 기사는 대통령에게 매달렸다. “마감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어차피 내일 발표하실 텐데 제게 좀 알려주십시오.”

대통령은 의심하지 않고 개각내용을 알려주었다. 그 기사가 써놓고 나온 기사가 거의 적중했는데 단지 장관 한 자리가 예상과는 달랐다. 기사는 그 장관의 임명에 대해 대통령에게 이견을 말했다. 이야기를 들은 대통령은 그럼 누가 좋겠느냐고 물었다. 기사는 기사로 내보낸 이를 추천했다. 대통령은 무릎을 쳤다. “내가 그이를 잊고 있었구먼.” 다음날 해당 부처 장관은 기사가 추천한 이로 바뀌어 발표되었다.

이건 먼 옛 이야기 아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이야기다. 노 전 대통령은 기자들이 독대를 요청하면 가끔 응해, 기자와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고 한다.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은 대중적으로는 인기가 많지 않은 편이나 청와대 출입기자들 지면 이들 가운데는 깊은 신뢰감을 갖고 있는 이가 적지 않다. 노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유연할 수 있었던 데에는 기자들과 깊은 교감을 유지한 그의 덕성 덕분이었지 모른다.

노 전 대통령 시절에 나는 기자협회가 주는 기자상 심사를 맡은 적이 있다. 언젠가는 중앙일보의 어느 기자가 상을 받았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답을 탈당하기 전날 1면 머리기사로 대통령 탈당 기사를 썼다. 노 전 대통령한테 일언반구도 귀퉁이를 받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심기를 헤아려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예측 기사를 썼는데 바로 다음날 대통령이 탈당을 선언했다. 기자의 취재력이나 통찰력을 찬탄할 일이기도 하지만, 그 시절에는 기자가 대통령의 깊은 속내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소통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의 기자들 사이에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예상을 깨고 보기 드물게 성공한 대

통령으로 알려져 있다. 기자들은 레이건 전 대통령의 성공 비결로 그가 기자 다루는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마음에 두고 있는 정책을 먼저 기자들에게 흘려 여론을 탐색하곤 했다. 그렇게 걸러낸 정책이 시행착오를 줄일 것은 자명하다.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니까 논외로 치더라도,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의 이야기까지도 아주 먼 옛 이야기처럼 생경하게 느껴지는 것은 웬일일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그런 유의 소통과는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인수위원들은 모두가 벼어리나 진배가 없어서 그 위원회에서 도무지 무슨 말이 오가는지 오리무중이다. 김용준 씨를 총리로 지명했다는데 직전까지도 그를 총리 후보로 꼽은 기사를 본 적이 없다.

왜 이렇게 됐을까? 박 당선자가 촉새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는 첩보보안에 익숙하다. 윤창중 대변인을 임명할 때도,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임명할 때도, 이동흙 헌법재판소 소장을 추천할 때도 모든 예측을 우스갯소리로 만들고 말았다.

박근혜 시대를 예측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기자가 많다. 청와대 출입기자들 사이에는 박근혜 시대에 청와대 대변인 일만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 같다고 푸념하는 이도 많

다고 한다. 그러나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가 없더라도,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다. 박근혜 시대에는 관변에서 촉새가 사라질 것이라는 점이 그것이다.

관변에서 촉새가 사라진다고 해서 새가 없는 천하가 될 리는 없다. 촉새 대신에 다른 새가 발호할 것이다. 무슨 새일까? 바로 백새다. 결혼질에 달통한 백새가 이 눈치 저 눈치로 관변을 누빌 것이다. 성공한 정치부 기자가 되기 위해 기자들은 이제 눈이 찢어진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대선에서 표출된 민심은 여야가 소통하며 대통령을 내세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소통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말을 너무 삼가서는 안 된다. 서로 마음도 열고 입도 열어야 한다. 종종 촉새도 나와야 한다. 촉새가 사라지면 백새가 살치고 백새가 살치면 결혼질 소통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질 정치의 행태가 어떤 것일지는 윤창중, 이동흙 사태가 말해준다.

목은 이색(李穡) 선생이 생각한다. 그는 필언필언(必言必言)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필요한 말은 반드시 하라는 뜻이지만, 한자는 묘해서 꼭 필요한 말만 하라는 뜻으로 풀 수도 있다. 과묵한, 꼭 필요한 말만 듣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고려대 미디어학부 명예교수>

종교칼럼



조 발그니 목포기독교대 유아교육과 교수·신부

설날 그리고 기억의 날

고 의식을 반복하는 가운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이 규정되고 강화된다고 한다. 즉 우리들은 새해인사를 하면서 진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새해에는 그 인사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종교는 이러한 의식을 강조한다. 프 랑스 사회학자 뒤르켐에 의하면 종교는 의례와 믿음의 두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종교적 믿음은 사람들에게 확신과 힘을 준다. 또한 종교적 의례를 통해 인간은 신에 대한 확신과 힘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종교 활동을 참여하게 된다. 이것이 공동체의식을 심어주고 강화한다고 뒤르켐은 주장한다.

종교전통은 믿음과 의식을 통해 무엇을 하고자 했을까? 그것은 바로 역사인식이다.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로 시작하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고백이며 이러한 전통이 만들어낸 것이 성경이다. 또한 전례는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일들을 돌이켜보

고 이를 재현함으로써 역사적의식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설날은 한해의 머리라는 뜻으로 ‘로슈 하 사나’라고도 하고 속죄일이라고도 한다. 백성이 모여 나팔을 불면서 경축하였기 때문에 ‘나팔절’이라고도 한다. 이 축제는 하나님이 창조주요 임금이며 세상 만물의 재판관임을 기리는 축제이다. 이 축제의 또 다른 전례적 명칭은 ‘기억의 날’이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날은 과거의 역사를 잘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자랑할 만한 것으로 뒤덮여 있는 것은 아니다. 실례로 열왕기에 나오는 왕 중에 성군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이다. 그런가하면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를 배신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를 풀이하고 기억하면서 이를 반추하였다. 사실 바빌론 유배 동안에 제일 먼저 그들이 한 것 역시 과거 역사를 보존하고 이를 전승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유신이 무슨 뜻인지,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 통치하였

고 전두환 대통령이 7년을 통치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될까? 부마항쟁이 언제 왜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잘 모른다. 학교에서 만나는 학생들은 유신은 둘째치고 1987년 6월도 대부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이 오랜 박해 속에서도 견뎌내고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한 것은 그들이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의식을 통해 역사를 전승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근현대사는 국사수업 끝자락에 잠깐 나올까 말까 하는 수준이며, 그것도 정치권 유물리를 따져 미화하거나 삭제되기도 한다.

이스라엘의 설날은 ‘기억의 날’이다. 그들은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아프고 슬픈 것을 들려주는 습관을 전했다. 그런데 우리들은 불과 30년 전에 일어난 일조차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미래만을 바라보고 강요하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설날 뿔 나팔이 울리면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회개한다. 우리의 설도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고 성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기고

광주시가 무등산국립공원 관리·운영 주도해야



이재창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운동본부장

그동안 광주시에서는 무등산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탐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중봉 주변 군부대 이전 및 복원, 원효사 지구 원주민촌 정비·복원, 누에봉 KT제1중계소 철거·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국내에서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는 증심사지단시설지구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무등산을 지키고 가꾸는데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아왔다.

이러한 광주시의 탐과 열정이 무등산국립공원 승격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1972년 도립공원 지정 이후 40여 년 동안 무등산을 모범적으로 지키고 잘 관리해오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단계 높은 차원의 공원 관리로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국립공원으로서 공원의 관리와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이 되면서 공원 관리운

영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때, 환경부에서는 지난 9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관리준비단을 파견하여 사무소 개소와 기념식 준비 등 본격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국립공원 지정 이후 관리권 전환을 서두르는 느낌이다. 하지만 이는 민주, 인권, 평화 정신이 깃들어 있는 광주시민의 무등산 사랑에 대한 남다른 시민정서와 광역도시권 내에 위치한 지리적 특수성을 도외시한 것

이다.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과 중봉 지역에 산재한 방송통신시설 통합 및 공원 확장에 따른 시민이용 편의시설 확충 등 현안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라도 ‘전면적인 관리권 전환’보다는 ‘일정기간 공동관리 후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연착륙 방식으로 실행하는 것이 차질 없는 관리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또한, 국립공원으로 신규 지정된 만큼 탐방객 편의시설에 투자 우선순

위를 두어야 할 것이며, 광주시의 기존 관리인력과 중박되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인력채용을 유예하는 등 무등산 운영·관리 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유연하게 대처하기 바란다.

그동안 광주시에서는 시민단체와 뜻을 하나로 모아가며 무등산 자연자원의 보존과 생태복원사업을 추진 해왔듯이, 앞으로도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와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이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공원관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무보합에서도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에 적극 협조한 광주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기 바라라, 정상 군부대 이전 및 방송·통신시설 통합 등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 광주시에서 주도적으로 공조체계를 유지함으로써 명품공원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것은 인터넷 검색만으로 이들이 쉽게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찾아 이용할 수 있는데 있다. 또한 컴퓨터를 잘 모르는 부모들은 이런 불법 사이트의 존재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자녀가 도박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전하고 올바르게 자라나야 할 우리의 청소년들이 이런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과 제재와 더불어 홍보와 교육도 해야한다.

▲최침야·광주시 북구 각회동

社說

도의원이 지사에게 폭력 행사하다니

박준영 전남지사가 23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정업무 보고하던 중 통합진보당 안주용 의원에 물세례를 받는 장면이 화제가 되었다. 안 의원이 요구한 해명과 사과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참으로 충격적이고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의원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도민이 선출한 도지사에게, 그것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자 토론의 장(場)인 의사당에서 물을 끼얹는 폭력행위가 가당한 일인가.

물론 박 지사의 발언이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물리력까지 행사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도의원이 지사에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폭력은 그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 의원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도의회 차원에서 협의를 통해 촉구하면 되는 일이다. 그런 면에서 안 의원의 처사는 비

윤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지금까지 광역의회에서 나락 시위나 몸싸움 등은 있었지만, 도지사를 본회의장에서 의원에 물세례를 당한 것은 사상 초유라는 점에서 심히 유감이다. 타지역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를 ‘지역의 과격 이미지’로 뒷배우지 않을 까하는 우려도 크다.

안 의원은 이날 도의회와 도의원에 사과를 표명했지만 정작 사과 대상은 도민과 전남도, 박 지사다. 즉시 사과하고, 도의회의 징계 조치에 따라야 한다.

도의회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객관적이고, 그에 상응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 전남도의 지적처럼 우발적이고, 단순한 개인 차원의 사건으로 치부하면 또 다시 폭력사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사회단체 등도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합리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명서 발표 등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亞문화전당 운영 주체 바뀌선 안 된다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을 준정부기관이나 법인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문화재단 소속인 문화전당의 운영체계를 이런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문화전당 건립·운영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이 제한적이고, 정부 책임도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시아문화재단은 23일 개발원 사무실에서 김용환 문광부 제2차관,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문화전당 조직 구성안을 배려는 수순이라는 지적과 함께 재정부가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지 의구심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화전당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시행한 국책사업으로 광주의 미래를 결정할 최대 현안이다. 정부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더 이상 흔들지 말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의지도 운영체계를 격하시키는 셈이 된다.

문화중심도시특별법은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국책사업임을 명시하기 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문화재단 소속인 문화전당의 운영체계를 이런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문화전당 건립·운영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이 제한적이고, 정부 책임도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시아문화재단은 23일 개발원 사무실에서 김용환 문광부 제2차관,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문화전당 조직 구성안을 배려는 수순이라는 지적과 함께 재정부가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지 의구심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화전당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시행한 국책사업으로 광주의 미래를 결정할 최대 현안이다. 정부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더 이상 흔들지 말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의지도 운영체계를 격하시키는 셈이 된다.

無等鼓

시인 이인철은 순창고추장을 어머니의 손맛에서 우리나라는 고향의 맛이라고 했다. “이슬을 닦고 장독뚜껑 열면 곰삭고 있는 해 하나-양푼에 곰삭은 해 한 수저 떠넣고/붉은 밥을 비비면/칼칼한 입맛/고추씨 같은 별빛과/왕대나무술 붓비는 바람소리/담 넘어 우리를 부르는 어머니의 가는 손/들린다”

순창고추장은 된장·고추장·간장 등 우리나라 장류(醬類) 가운데 브랜드 파워가 가장 크다. 고추장이 순창이란 지명과 결합해 고유명사가 될 정도로 모르는 사람이 없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스타 마케팅이 한 몫을 하고 있다.

순창군 구립민안정마을 홈페이지는 전국 어디에서나 고추장이 생산되지만 유독 순창고추장이 유명할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고려말 이상계가 스승인 무학대사가 기거하고 있던 순창군 구립민안정마을을 찾아가는 도중, 어느 농가에 들러 고추장에 점심을 맛있게 먹고 그 맛을 잊지 못하다가 왕이 된후 진상하게 했다”

는 이야기다. 이후에 천하일미의 진품으로 유명해졌으며 지금까지 그 명성과 과범이 이어져오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상계는 1408년에 사망했고 고추가 일본에서 들어온 시기가 17세기 초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상계가 고추장을 알았을 리 없다. 이상계가 맛본 것은 고추장의 전신인 ‘초시’로 호호(후추나무 열매껍질)를 넣어 만든 것이다. 기가 막힌 스타 마케팅이다.

23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도 유럽 특급 요리를 동원해 한국 장류를 소개하는 스타 마케팅이 열렸다. 특급 요리사들은 한국의 된장·고추장·간장을 활용해 만든 20여 가지 요리로 유럽인들의 혀끝을 사로잡았다고 한다.

전남에도 원장마을로 유명한 강진 신기마을처럼 장류를 생산하는 곳이 많다. 그렇지만 전국적인 브랜드 파워를 갖추지는 못했다. 이야기가 허무맹랑하지만 양대산맥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스타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장필수 사회팀장 buny@kwangju.co.kr

불법 스포츠 토토에 빠져드는 청소년들 걱정

최근 들어 성인들만 주로 이용하는 스포츠 토토에 청소년들이 빠져들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정상적인 스포츠 토토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어 불법 사실업체를 이용하고 있다는 데 있다.

사실상 스포츠 토토는 축구나 농구, 야구, 하키 등의 스포츠 경기 결과를 참가자가 예

상에서 맞추면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것으로 일종의 도박행위이며 청소년들은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음에도 이 사이트는 청소년에 대한 제재가 없다는데 심각성을 더 하고 있다. 해외의 서버를 이용하여 도난 카드 용이하지 않음에도 청소년들도 간단한 신상정보만 입력하면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실제 어떤 사이트는 휴

대전화번호와 은행계좌번호만 적으면 가입이 승인되며 대부분의 청소년이 소유한 스마트폰으로도 접속할 수 있어 별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하고 심지어 돈을 탕다하는 소문도 자자하다고 한다.

이처럼 사실 스포츠 토토에 접속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한번 빠져들게 되면 좀처럼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다. 여태껏 성인들에게 문제가 되어왔던 도박 중독에 청소년들도 빠져들 수 있으며 더 심각한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경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사회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체육팀 2200-697 사진부 2200-693 조사부 2200-571 전신부 2200-68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00-551 <F A X 227-96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문화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